

5

안 중 철

불교학과

해동 천태의 원류

海東天台의 源流

안 중 철

불교학과

目 次

緒 言

I. 原始海東天台의 源流

1. 大覺國師의 見解
2. 元曉教判과 天台教判과의 關係

II. 傳記에 보이는 初期의 天台法華 研究者

1. 傳記의 內容과 誤謬
2. 初期의 天台法華 研究者

III. 復興期 海東天台의 源流

1. 義通과 諦觀
2. 天台法脈과 義天

結 語

緒 言

불교학이라는 방대한 敎學體系속에는 다양한 갈래가 있다. 이를테면 俱舍學, 唯識學, 淨土學, 華嚴學, 天台學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 교학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특색이 상존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교학체계 중 특히 中國佛敎學上에 있어 커다란 양대 산맥을 형성하며 불교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천태교학과 화엄교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은 우리나라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에 있어 화엄교학이 그 浩翰性을 자랑한다면 천태교학도 그 組織의 緻密性이나 深淵性에 있어 그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천태교학은 최초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移植되었는가를 논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 천태교학 혹은 천태사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發源하고 傳承되었는가를 밝힌다는 점에서 海東天台의 源流라는 제목을 설정해 보았다.

I. 原始 海東天台의 源流

1. 大覺國師의 見解

韓國天台思想의 中興祖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은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淵源을 元曉(617-686)에게 두고 그 사상의 源泉은 원효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義天은 「大覺國師文集」에서

이 땅에 부처님 법이 들어온지 700여년에 여러 종파와 교학이 어울려 왔으나天台敎學이 밝게 빛났으니 옛날 원효 보살이 그 앞을 장식하고 체관 법사가 그 뒤를 드날렸다.

海東佛法七百餘載 雖諸宗競演衆教互陳 而天台一枝 明夷于代 昔者 元曉菩薩稱美於前 諦觀法師 傳揚於後¹⁾

고 하였다. 이에 대해 趙明基 박사는 우리나라 ‘天台敎學의 初祖는 元曉聖師이며 이를 諦觀法師가 中興하여 繼承하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이는 원효에게 「法華經宗要」 1卷, 「法華經方便品料簡」 1卷, 「法華經要略」 1卷, 「法華經略述」 1卷 등의 저술이 있음을 볼 때 일면 옳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天台敎學은 教觀兩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敎門의 뼈대를 이루는 五時八敎說이 「法華經」 信解品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天台思想 전체에 걸쳐 法華思想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도 타당성 있는 평가라고 하겠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元曉를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初祖로 보아야 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천태교학이 최초로 원효로부터 淵源한다는 說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의문점이 없지도 않다. 그 의문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곧 알 수가 있다.

天台敎學이란 조명기 박사가 서술하고 있듯이²⁾ 주로 「法華經」에 바탕하여 성립되어 있으나, 교학의 根柢에는 반드시 법화경사상만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 「大品般若經」과 「本業璣珞經」 나아가 三論宗에서 중시하는 「中論」 및 「大智度論」에도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天台大師 지의(538-597)는 법화경과 반야경 그리고 대승불교를 대성시킨 龍樹의 저술인 대지도론과 중론을 철저히 연구하고 통달함으로써 대승불교의 근본 핵심을 체득하였고, 그것에 의해 그의 독자적인 敎學體系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나아가中國天台敎學의 初祖로 받아들여지는 北齊의 慧文禪師도 中論의 四句偈인 ‘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亦名爲假名 亦是中道義’³⁾에서 또 「大智度論」⁴⁾을 읽다가 제30권에 있는 ‘三智實

1) a. 「大覺國師文集」 第3.3葉 後面, 新創國清寺啓講辭.

b.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天台思想」, p.108.

2) 趙明基, 前揭書, p.194.

3) 「中論」, 「大正藏」 30,33,b

4) 「佛祖統紀」 卷第6, 「大正藏」 49,178c

在一心中得'의 글에서 諸法實相의 참뜻을 깨닫고 一心三觀의 要旨를 證悟한 것이 天台敎學의 根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南嶽慧思(515-577)도 이 법을 전해 받았으며, 천태대사 지의도 이러한 空觀에 바탕한 깨달음에 의해 천태교학을 대성시켰으므로 敎觀二門 中 觀門은 中論과 大智度論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태교학은 「법화경」에서 설하는 法華思想이 그 교학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뿐아니라 전술한 반야경을 비롯한 中論등의 사상으로부터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원효스님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법화경」을 연구하고 여러 종류의 주석서까지 냈다는 점에서 천태교학과 연결시켜 볼 수는 있지만 천태교학 그 자체에 전적으로 직결시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 원효가 天台敎學의 初祖라고 한다면 어째서 五時八敎說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 자신이 따로 四敎判을 세웠는가 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敎判은 한 宗派나 學派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元曉의 敎判과 天台敎判과의 관계를 약술해 보기로 한다.

2. 元曉敎判과 天台敎判과의 관계

南北朝 이후 中國의 여러 敎判說은 대체로 「華嚴經」과 「涅槃經」을 「法華經」보다 우위에 두었다. 南地에서는 涅槃宗이 盛行하고 北地에서는 地論宗이 우세하여 열반경과 화엄경이 각별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⁵⁾ 이를 「法華玄義」⁶⁾에서는 南三北七(江南三家, 江北七家)이라 하는데, 남쪽에는 慧觀(353-423), 북쪽엔 光統律師 慧光(468-537)이 중심이 되어 兩大系脈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法華經을 優位에 놓을 事情은 아니었는데, 이때 南岳慧思(514-577)에 의해 새로운 法華至上主義의 입장을 내세우는 天台學의 열기가 일어났다. 天台大師는 일찍이 있었던 이러한 諸敎判說을 研詳去取⁷⁾하고 南三北七說을 종합정리함으로써 그의 五時八敎說을 확립하였다.

元曉는 「涅槃經宗要」의 末尾에서 天台大師 지의와 당시 南北의 敎判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隋나라 때에 天台智者大師는 神인에게 물기를 '北方에서 四宗을 내세운 것이 經의 뜻에 맞는가' 하였다. 神인은 '失한 것이 많고 得한 것이 적다' 하였다. 智者大師는 다시 물었다. 「成實論」의 분들이 五時敎를 내세운 것은 부처님의 뜻에 맞는가.' 神인은 대답하기를 '北方의 四宗을 내세운 것보다는 조금은 勝하나 그래도 過失이 많다' 하였다.

5) 安藤俊雄, 「天台學」 p.60.

6) 「法華玄義」 卷10, 「大正藏」 33, 801b-805b.

7) 同33, p.805b.

又如隋(隨)時 天台智者 問神人言 北立四宗 會經意不 神人答言 失多得少 又問成實論師立五教 稱佛意不 神人答曰 小勝四宗 猶多過失⁸⁾

이는天台大師가 神人과의 문답을 통하여 北立四宗과 成實論師의 五教가 각각 經의 뜻과 부처님 뜻에 상응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의 문장이다. 천태대사가 실제로 이같은 문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묘법연화경현의」 卷10의 教相에 보면 ‘四研詳去取者’의 항목에서

北地五時 亦無文據 又失實意 其間去取類前可知……四宗教失五味方便意 又失實意 五宗六宗例如此

라고 하여 교판의 하나 하나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효는 諸教判에 대해

네가지 宗으로써 經의 뜻을 科目하려 하고 또 五時의 教로써 부처님의 뜻을 한정하려고 한 것은 마치 소라(螺)로 바닷물을 재려는 격이요 대통(管)으로 하늘을 엿보려는 격이다 而欲以四宗 科於經旨 亦以五時 限於佛意 是猶以螺酌海 用管窺天者耳⁹⁾

라고 하여 고래로부터 행해져왔던 여러 교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효는 천태대사 지의에 대해선

天台智者大師는 禪定과 智慧를 모두 통달하여 온 세상이 그를 존중하여 凡夫와 聖인들이 그를 헤아려 알 수가 없는 분이다.

天台智者 禪慧(惠)俱通 舉世所重 凡聖難測

라고 하여 천태대사의 인품을 극찬하고 있다.

어쨌든 원효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어느 교판을 막론하고 教判 一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아마도 教判이 지니는 긍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教判의 優劣論爭에서 오는 부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元曉에게 교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唐 賢首 法藏(643-712)은 「華嚴經探玄記」¹⁰⁾ 卷1에서 元曉의 教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8) a. 「元曉聖師全書」 卷1, pp.523-525.

b. 《涅槃宗要》「大正藏」 38,255c.

c. 「日本傳教大師全集」 제3, p.358.

9) 「元曉聖師全書」 卷1, p.525.

10) 《探玄記》「大正藏」 35, 111a, b.

- 海東新羅國 元曉法師……立四教
 一 三乘別教 謂如四諦教 緣起經等
 二 三乘通教 謂如般若經 深密經等
 三 一乘分教 如瓔珞經 及 梵網經等
 四 一乘滿教 謂華嚴經 普賢教¹¹⁾

이상과 같이 元曉는 四教判을 세우고 있는데 범장은 이를 원효가 지었다는 「華嚴疏」에서 引用하고 있다. 원효가 화엄소 10권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은 「新編諸宗教藏總錄」¹²⁾과 「三國遺事」 제4에도 있는데, 지금은 그 序文과 卷 제3 ‘光明覺品’의 처음 부분만이 남아 있다. 나아가 元曉의 四教判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다른 典籍에도 보인다.

唐, 李通玄(?-740) 「新華嚴經論」 卷3, 「大正藏」 36, 734c

唐, 清涼寺澄觀(737-838) 「華嚴經疏」 卷12, 同 35, 510a

新羅, 表員(751-?)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4, 「續藏」 5, 15, 18c

이처럼 원효의 四教判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元曉의 著書 속에는 記述되어 있지 않다. 단지 전술한 表員의 저서에 記錄되어 있을 뿐이다.

어쨌든 清涼寺 澄觀은 元曉의 四教判과 天台大師의 四教判에 대해

然此大同天台 但合別圓 加一乘分(教)

이라고 하여 두 교판이 대동소이하다고 하였다. 즉 천대대사가 세운 四教와 거의 같은 원효의 四教는 別教와 圓教가 통합되어 있고 一乘分(教)를 더 첨가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日本의 普寂도 「華嚴經探玄記發揮抄」¹³⁾ 1권에서 찬성하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원효의 一乘滿教는 天台大師의 圓教에 대응되는데, 華嚴을 지칭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원효의 四教判은 天台의 四教判에 상당한다.

그에 의하면 一乘滿教는 華嚴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天台圓教가 法華를 주로하고 있는 것과는 뜻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天台의 四教判에서도 화엄경을 圓滿經의 범주에 넣고 있기 때문에 天台四教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趙明基 박사도 元曉가 四教 중 ‘마지막 一乘滿教에 대해 華嚴敎라 말하고 있지만 自宗을 第一敎라고 하는 보통의

11) 「大正藏」 50, 1166b.

12) 同 39, 1006b.

13) 「大日本佛教全書」 8, p.40a.

華嚴宗家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¹⁴⁾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전술한 元曉와 지의의 敎判에 대한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元曉의 四敎 ¹⁵⁾	天台의 四敎 ¹⁶⁾
三乘別敎 四諦敎, 緣起經等 未明法空	藏敎 阿含經, 四諦, 緣起等 從假入空觀의 析空觀
三乘通敎 般若經, 深密經等 諸法空	通敎 三乘同稟 三乘에 共通 因緣卽空 從假入空觀의 卽空觀
一乘分敎 瓔珞經, 梵網經 隨分敎	別敎 純大乘, 不共二乘 從空入假觀
一乘滿敎 圓滿敎 華嚴經	圓敎 圓融, 會三歸一, 法華經 華嚴經 一心中道觀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고 하겠다.

1. 海東天台의 연원은 元曉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원효가 해동천대의 初祖이다.
2. 원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범화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실행하였고 이 경에 대한 많은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또 그의 思想體系 속에는 法華의 會三歸一사상이 크게 터잡고 있다.
3. 천대교학은 「法華經」 뿐만 아니라 「大品般若經」이나 「中論」 및 「大智度論」에도 크게 바탕하여 있다.
4. 원효는 당시의 교판과 천대와의 관계를 「涅槃宗要」에서 인용하여 보이고 당시의 여러 교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천대대사의 인품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였다.
5. 원효의 敎判이天台의 敎判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서로 유사한 점은 많다.

따라서 의천 대각국사가 '海東天台의 源流는 元曉에게서 發源'한다고 한 것은 근거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천대대사와 관련하여 당시의 교판들을 비판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천대대사의 인품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크게 흠모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가 천대의 敎學이나 思想체계를 이식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14) 趙明基,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p.124.

15) a. 「華嚴經探玄記」卷1, 「大正藏」 35, 111a.

b. 「華嚴玄談」卷2, 同 35, 510a.

16) 지의撰 「四敎義」卷1, 同 46, 721-722.

러나 그가 博學多識했음은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했다는 점과 천태지의의를 존승하여 찬탄하고 있는 記述을 볼 때 천태대사의 교학체계를 좋게 보았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天台法華思想에서 중시하는 會三歸一 사상은 「法華經宗要」 뿐아니라 「涅槃經宗要」나 「大慧度經宗要」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 宗派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要素인 教判이 천태와 同一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많다는 데에 주목하고 싶다.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元曉의 법화사상 속에는 天台라는 말만 빠져 있을 뿐 天台思想의 기본 골격이 상당부분 들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II. 傳記에 보이는 初期의 天台法華 研究者

1. 傳記의 內容과 誤謬

「宋高僧傳」¹⁷⁾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¹⁸⁾에 의하면 海東天台의 원류에 대해 新羅의 玄光法師가 한국에서 天台敎學을 연구한 첫 번째 인물이라 하였으며, 두번째는 高句麗의 波若法師(562-613)이고, 세번째가 新羅의 緣光法師라 하였다. 나아가 中國의 天台敎學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식한 인물이 三禪師(法融, 理應, 順英)라 하여 이를 구체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佛祖統紀」¹⁹⁾이다. 특히 三禪師가 天台敎學을 한국에 移植했을 때는 천태대사의 교학이 完成되었을 뿐아니라 章安灌頂(561-632, 天台宗 第二祖)에 의해 筆錄이 完了된 시점이므로 가장 온전한 천태교학의 전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시원은 전술한 대로 元曉에서 연원하고 있다. 둘째, 玄光, 혹은 緣光에 의해 傳來되어 研究 形成되었다. 셋째, 三禪師에 의해 移植되었다는 등 세가지 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天台敎學의 연원은 三禪師說에 의하면 8세기경, 그밖의 설을 따를 경우는 7세기 경이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천태의 연원 및 전승 그리고 특색을 약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新羅의 玄光法師설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다. 新羅의 玄光是 百濟의 玄光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해 安啓賢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法華靈驗傳」에는 海東 熊州(혹은 熊川) 사람인 玄光에 대한 傳記가 收錄되어 있다. 1918년에 刊行

17) 宋 贊寧撰, 「宋高僧傳」卷第18, 「陳新羅國玄光傳」, 「大正藏」50, 820c.

18) a. 唐 道宣撰, 「續高僧傳」卷17, 「大正藏」50, 564-568.

b. 融慈弘, 「天台宗史概說」大久保良順補注 p.2.

c. 「韓國天台思想研究」東國大學校 出版部, p.243, 275, 431.

19) a. 宋 志磐撰, 「佛祖統紀」卷7, 「大正藏」49, 188b, 同 49, 188a, 同 49, 248b.

b. 唐 惠詳撰, 「弘贊法華傳」卷3, 「大正藏」51, 20a.

된 「朝鮮佛教通史」에도 법화영험전에 실려있는 내용과 동일한 玄光의 전기가 있으나 이는 「宋高僧傳」의 것을 그대로 轉載한 것이다……海東의 熊州 또는 熊川이라 하면 百濟의 舊都인 오늘의 忠清南道 公州를 가리킨다.²⁰⁾

결국 「송고승전」 및 기타 자료에서 전하고 있는 新羅 玄光은 百濟의 玄光으로 보아야 옳다는 말이며 이는 오늘날 통설로서 정착되어 있다.²¹⁾

따라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천태교학을 전래시킨 이는 百濟의 玄光法師이다. 앞에서 서술한 傳記 등에 의하면 그는 海東 熊州人으로 일찍이 출가하여 求法하고자 中國으로 건너갔다. 南朝였던 陳 나라로 가서 衡山(南岳)의 慧思선사를 찾아갔다. 그는 스승 혜사로부터 法華經 安樂行品の 法門을 은밀하게 전해 받고 힘써 닦아 法華三昧를 증득하였다. 스승 혜사는 제자 玄光을 印可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깨달은 바는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다. 잘 간직하여 부처님의 법이 더욱 빛나게 하라. 그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방편으로써 그 곳 사람들을 일깨워 이익되게 하라.
汝之所證 眞實不虛 善護念之令法增長 汝還本土 施設善權 好負螟蛉 皆成螺贏²²⁾

이같은 스승의 인가와 당부를 받은 玄光은 스승 慧思의 고마움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光禮而垂泣). 그리고는 고향인 熊州(지금 충남 공주)에 돌아와 절을 이룩하고 크게 가르침을 펼쳤다.

玄光이 慧思에게 은밀하게 전해받았다는 안락행품의 법문(密授法華安樂行門)이란 무엇인가. 이는 방편을 열어 진실을 나타내고(開權顯實) 삼승을 모아 一乘에 귀입시킨다(會三歸一)는 《法華經》 전반부 14品 중 安樂行品에서 설해지는 법문인데, 安啓賢 박사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서술하고 있다.

이 法門은 惡世에 법화경을 널리 퍼려는 菩薩이 지켜야 할 行法으로서 身, 口, 意, 誓願 등 4種의 安樂行을 말한다. 身安樂行은 日常生活에 있어 異端邪說적인 反佛敎의 사상을 멀리하고 如法하게 사는 자세이다. 口安樂行은 경망스럽게 지껍이거나 他人의 과오를 들추지 않는 일이다. 意安樂行은 一切衆生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않고 平等하게 대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說法하는 것이다.²³⁾

그리고 誓願安樂行은 一切衆生을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시키려는 서원을 갖는 일이다

20) a.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p.14~15.

b.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編, 1918, p.18.

c. 高橋亨, “大覺國師義天の高麗佛敎に對する經論に就つて” 「朝鮮學報」 第10輯.

21) 金煥泰,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 「韓國佛敎學」 第3輯.

22) 「宋高僧傳」 卷18, 「大正藏」 50, 820b.

23) 安啓賢, 前掲書, p.19~20.

다. 이 行法은 「法華經」에서 설해지지만, 慧思는 이 四安行樂을 주제로하여 저술한 「法華經安樂行義」 1권을 남겨 놓았다. 이 책은

法華經者는 大乘頓覺이라 無師自悟하여 疾成佛道니라

라고 시작되는데 法華三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持戒하고 忍辱하고 精進하고 禪定勤修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法華三昧를 勤學하고 일체중생을 모두 부처님이나 대보살 혹은 善知識과 같이 觀想하라
須持戒忍辱精進勤修禪定 專心勤學法華三昧 觀一切衆生 皆如佛想 合掌禮拜如敬世尊 亦觀一切衆生皆如大菩薩善知識想²⁴⁾

또

無上의 道를 구하고자 하여 法華經을 修學하면 몸과 마음에 甘露의 법을 증험하고 미묘한 법문을 淸淨하게 한다
欲求無上道 修學法華經 身心證甘露 淸淨妙法門

고 하였으며 나아가

어떤 사람이 道를 구하고자 하여 法華經을 受持, 讀誦하며 수행하면 法性이 空한 것을 觀하게 되고 十八界가 그 성품 없음을 알게 되어 甚深한 禪定을 얻고 네 가지의 미묘한 安樂行을 구축하게 된다.
有人求道 受持法華讀誦修行 觀法性空 知十八界無所有性 得深禪定 具足四種妙安樂行²⁵⁾

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慧思는 이 책에서 法華三昧를 有相行과 無相行의 둘로 나누고 있다. 有相行이란 「법화경」 普門品에 바탕한 것으로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 산란심 그대로 이 경을 독송하고 一心에 경전의 文字를 專念하는 것이 수행모습이다. 이 수행을 부지런히 지속하면 六牙白象을 타신 普賢菩薩께서 現前하고 修行者의 罪障을 멸해주고 眼根을 청정하게 하여 十方三世 부처님을 나투어 보도록한다는 가피신앙이 기초가 되고 있다.

無相行이란 전술한 四安樂行을 중심으로하여 行, 住, 坐, 臥를 통해 深妙한 禪定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 현상존재에 접하게 되더라도 心想寂滅한 경지에 머무르면서 一舉一

24) 《法華經安樂行義》「大正藏」46, 697下.

25) 「大正藏」46, 698.

動을 삼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

玄光이 스승 慧思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法華三昧는 이 法華三昧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玄光은 法華三昧와 관련한 어떠한 저술도 남기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삼매를 증득하고 스승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나라 초기의天台敎學 形成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初期의 天台法華 研究者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天台敎觀을 修學한 인물이 百濟의 玄光임을 앞에서 들었다. 그것은 주로 「宋高僧傳」을 중심으로한 내용이었다. 唐, 道宣撰 「續高僧傳」²⁷⁾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天台敎觀을 연구한 인물은 高句麗의 波若(波若, 562-613)法師라 하였다. 그가 언제 출가하고 어느 해 中國으로 건너 갔는지 알 수 없으나 隋 開皇16年(596)에 天台山으로 들어가서 天台大師 지의에게 禪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지의는 그의 사람됨이 출중하여(利根上智)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이곳(天台山)에 인연이 있으니 마땅히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妙行을 이루도록하라. 이 천태산의 최고봉을 華頂이라 하는데 여기서 육칠십리가 된다. 내가 옛날에 頭陀行을 닦던 곳이다. ……거기에 가서 공부한다면 반드시 깊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곳에서의 衣食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汝於此有緣 宜須閑居靜處 成備妙行 今天台山最高峯 名爲華頂 去寺將六七十里 是吾昔頭陀之所……汝可往彼學道進行必有深益 不須愁慮衣食²⁸⁾

그는 스승 天台大師의 가르침 대로 開皇18年(598)에 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낮으로 잠도 안자고 눕지도 않고 16년간 열심히 수행하였다
曉夜行道不敢睡臥 影不出山 十有六載

고 한다. 그 후 隋 大業9年(613) 홀연히 산을 내려와 國淸寺에서 입적하였는데 臨終을 전후하여 갖가지 신령스러움(異瑞)을 보여주었다 한다.

상술한 대로 고구려 波若의 경우는 中國에 유학하여 天台大師로부터天台敎觀을 공부

26) 《法華經安樂行義》「大正藏」46, 697-702.

27) a. 「續高僧傳」17, 釋智越傳에 고구려의 釋波若傳이 들어있다. 「大正藏」50, 570c.

b. 願慈弘, 大久保良順補注 「天台宗史 概論」大藏出版, p.42.

c.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p.108.

28) 「續高僧傳」卷17, 「大正藏」50, 570c.

했지만 귀국치 못하고 그 곳에서 입적하였다.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天台法華와 관련하여 남긴 著書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가 천대대사로부터 배웠다는禪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高句麗에서는最初로 중국에 들어가天台大師에게서天台教觀을 배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原始天台의 教學형성에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 땅에 세번째로天台教觀을 전래시킨 이는新羅의緣光法師이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으로 일찍이出家하여經典을 배웠는데 이해력과 기억력이 뛰어나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다. 그는 보다 심도있는佛敎研究를 위해隋仁壽年間(601-604)에中國으로 건너가天台大師에게로 갔다. 처음에는朝夕으로 심부름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수행끝에 드디어 마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스승 지의는 그로 하여금法華經을 강의하게 하였다.

智者郎令就講妙法蓮華經 俊郎之徒 莫不神伏

그리하여 그의 講說을 들은 모든 학인들은 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한다.

그 후 연광은 이미 공부가 성취되었으므로新羅로 돌아 온다. 고향에 도착한 그는「妙法蓮華經」을 강설하여法門을 펼쳤으며法華經 독송하는 일을 평생토록 하루도 쉬는 일이 없었다 한다. 그는 80세에入寂하였는데 특히, 입적 후의異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闍維既畢 體舌獨存 一國見聞 咸難希有 光有妹二人 早懷清信 收之供養 數聞體舌自誦法花 妹有不識法花字處 問之皆道²⁹⁾

즉緣光은 화장(闍維)했을 때 혀가 타지 않고 연꽃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희한하다고 찬탄하였다.

나아가緣光法師에게는 두 사람의 누이(妹)가 있었는데 그들도 일찍부터佛法을 믿어信心이 돈독하였다. 그 누이들이緣光법사의 남은 혀를 거두어 모시고供養하였는데 그 혀 바닥이 자주法華經을 독송하였다. 그리고 누이들이法華經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를 물으면 그 혀바닥이 모두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高句麗의波若는天台大師에게서天台教觀을修學한 뒤中國에

29) a. 唐 惠詳撰「弘贊法華傳」卷3, 「大正藏」51, 20a.

b. 唐 僧祥撰「法華傳記」卷3, 同 51, 61c.

c. 唐 僧祥撰, 「卍續藏」2Z, 7, 4.

서 入寂하였고, 百濟의 玄光이나 新羅의 緣光은 求法한 후 각자 귀국하여 法華思想을 펼쳤다. 그리고 이 분들의 스승은 백제 玄光의 경우는 南岳 慧思(515-577)가 되고 고구려의 반야나 신라의 緣光은 天台지지가 된다. 그리고 天台敎學의 形成은 이미 北齊 慧文이 「中論」 등을 읽다가 諸法實相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敎學의 完了시점은 天台大師가 入寂한 후 天台三大部가 완성된 때로 본다. 따라서 天台大師와 거의 동시대이거나(波若, 緣光) 그보다 약간 빠른 玄光등의 天台法華사상 공부는 완벽한 天台敎學연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인은 분명히 慧思나 天台大師에게서 직접 지도받았다는 記錄을 남기고 있으므로 그들이 배워온 天台敎觀思想은 三國時代의 天台敎學 形成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新羅傳敎 三禪師(730년 歸國)'에 관한 記錄이다. 「佛祖統紀」卷7에

新羅에 天台敎觀을 전한 이는 法融과 理應과 純英이다.
新羅傳道者 法融 理應 純英³⁰⁾

라고 있으며, 同 統紀 卷10 左溪旁出家 目錄에도

新羅法融禪師 新羅理應禪師 新羅純英禪師³¹⁾

라고 보인다. 나아가 同統紀 卷23 歷代傳敎表에는 開元18年(730, 新羅 聖德王 29年)에 新羅의 法融 등이 귀국하여 天台敎觀을 전하였다(傳敎歸國)³²⁾고 있다. 또 同紀 卷24 佛祖世繫表³³⁾에도 八祖 左溪大禪師 下에 新羅 三禪師의 이름이 列記되어 있다.

이상의 記錄들을 통해서 보면 法融, 理應, 純英의 新羅 三禪師가 언제 中國으로 건너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唐 나라의 天台 제8祖인 左溪玄朗에게서 天台敎觀을 전해받고 開元18年, 즉 新羅 33代 聖德王 29年(730)에 귀국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세 분이 각각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新羅 어느 寺院에 출가하여 어느 때 得道하였으며, 귀국해서는 어느 절에서 어떻게 活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佛祖統紀」에 보이고 있는 이상의 기록에 의하여 그 때 天台敎觀이 세 사람에게 의해 新羅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 분이 활동했던 시대(~730~)는 天台三大部를 완성시킨 天台 제2祖 章安灌頂(561-632)보다 훨씬 後代이므로 中國에서 天台敎學이 完了된 이후의 敎學思想을 전래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즉 天台大師 이전에 玄光 등

30) 「佛祖統紀」卷7, 「大正藏」49, 188b.

31) 同 49, 201a.

32) 同 49, 248b.

33) 同 49, 251c.

에 의해 傳來된 天台教觀이 天台敎學 형성을 위한 天台法華의 敎觀思想이라면 이 때의 天台思想은 中國에서 天台敎學이 완벽하게 완성된 이후의 天台敎學이므로 가장 온전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이식된 天台敎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三禪師도 百濟의 玄光이나 高句麗의 波若 그리고 新羅의 緣光과 마찬가지로 法華나 혹은 天台敎學에 관한 어떠한 著書도 남겨 놓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天台敎學 思想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스승으로 삼았던 이들은 모두 中國天台의 學脈이나 法脈 혹은 天台宗脈을 계승함에 있어 모두 正脈을 잇고 있던 분들이므로 正統性이 있는 天台教觀을 배워왔으리라고 여겨진다. 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天台教觀을 달리 연구한 人物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초기의 우리나라 天台敎學 형성에 이들의 교학 사상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復興期 海東天台의 源流

1. 義通과 諦觀

전술한 대로 海東天台의 原初의 淵源을 찾는다면 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研究되었거나 이식되었던 天台思想은 天台敎學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中國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래하였던 天台教觀은 天台大師 지의 이전의 天台教觀 사상이었으므로 온전한 天台敎學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新羅 三禪師에 의해 전래하였다는 天台教觀도 그 내용이 어떤 형태였던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天台宗脈을 상송하거나 天台의 敎觀體系를 전해 주거나 전해 받으며 最初期 활동했던 海東天台의 人物을 든다면 天台 제13祖 寶雲義通(927-988)이나 諦觀(~961-970) 그리고 大覺國師 義天(1055-1101) 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海東天台의 源流를 살펴보기로 한다.

宋 志磐이 지은 「佛祖統紀」에서는 天台敎學의 연원이 敎主 釋迦牟尼로부터 출발하여 高祖(天台宗의 제1祖) 龍樹를 거쳐 2祖 慧文, 3祖 慧思, 4祖 天台大師 지의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 法脈은 相承을 계속하여 天台 제11祖 高論清瑩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護法의지가 강했으므로 쇠퇴했던 당시 中國의 天台敎學을 크게 부흥시켜 놓는다. 물론 그는 吳越王 錢弘俶와 같은 護佛王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으므로 그의 敎學진흥 운동은 크나큰 탄력을 받게도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唐末 五代의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武宗의 破佛에 의한 법란으로 괴멸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불교계는 그에 의해 크나큰 발전을 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天台敎學의 전성기를 趙宋天台라 부른다. 그의 門下에서는

螺溪 義寂(天台12祖, 919-987)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와 불교 부흥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義寂은 「止觀義例」, 「法華十妙不二門科節」 등天台敎學에 관계되는 저술을 남겼을 뿐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는데, 그들 중 특히 유명한 제자가 高麗의 義通과 諦觀이었다.

義通의 字는 惟遠이며 高麗人으로 성이 尹氏였다. 頂上에는 肉髻相이 있고 眉毫가 부처님과 유사하여 길이가 대여섯 치나 되었다고 한다. 일찍이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고 華嚴과 起信論을 공부하여 많은 이들의 존송을 받았다. 晉의 天福年間(936-943)에 중국으로 건너가 처음 德韶國師가 있는 天台 雲居(韶國師所居)로 가서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다시 螺溪 義寂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義寂法師에게서 天台 一心三觀의 妙旨를 듣고

圓頓의 敎學이 여기에 다 있구나
圓頓之學畢茲徹矣³⁴⁾

라고 감탄하고 그 곳에 머물러 天台敎學을 공부하였다. 오랫동안 敎觀을 익힌 그의 名聲이 멀리 사방에 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같이 공부하고 있던 同學에게

나는 이 敎觀으로 아직도 참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겠다. 그러기 위해선 父母의 나라로 갈 것이다.
吾欲以此道導諸未聞 必從父母之邦³⁵⁾

라고 하직인사를 하고는 行장을 챙겨 길을 나섰다. 그는 고국인 高麗로 돌아가기 위해 四明 땅으로 가서 배를 타려고 하였다. 그 때 그 地方 郡守였던 太師 錢惟治(吳越의 忠懿王 錢弘俶의 아들)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義通法師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이 곳에 머무르시건 고국으로 가시건 제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에 하필이면 雞林(高麗)이어야만 합니까?
或尼之 或使之(孟子, 行或使之 止或尼之 尼語乙反)非子之力也 如曰利生 何必雞林乎(高麗別名)³⁶⁾

義通은 太師 錢惟治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 들리어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34) 「佛祖統紀」卷8, 「大正藏」49, 191b.

35) 同 49, 191b

36) 同 49, 191b

인연이 이미 그대와 맞아들었거늘 내가 어찌 거절하겠는가
 師曰 緣既汝合 辭不我却 因止其行³⁷⁾

라고 한 뒤 그곳에 주석하면서 그에게 菩薩戒를 주었다.

開寶元年(968)에 漕使 顧承徽가 여러번 義通法師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집을 傳敎院으로 회사하여 그로 하여금 거처케 하였다.

寶雲 義通이 53세 되는 太平興國 4年(979)에는 天台 제14祖 四明知禮(法和, 960-1028)가 傳敎院으로 찾아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따라서 海東 高麗國 출신인 우리나라의 義通法師는 中國의 天台宗 正脈을 이어 13祖師가 되었을 뿐아니라 유명한 天台 14祖 知禮에게 天台의 正統法脈을 이어주었던 것이다. 그는 그 곳에서 天台法華의 교법을 펼쳤으며 후에는 王으로부터 寶雲禪院이라는 寺額을 받게 되어 傳敎院은 보운선원이란 이름으로 寺名이 바뀌게 된다.

보운선원에서 天台敎觀을 펼치기 20여년에 그의 가르침을 받고 일가를 이룬 제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는 항상 사람을 부를 때에는 ‘고향 사람(鄉人)’이라 하였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나는 淨土를 고향으로 삼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往生할 것이므로 모두가 나의 고향 사람이다.
 五以淨土爲故鄉 諸人皆當往生 皆吾鄉中之人也³⁸⁾

라고 하였다. 그는 端拱 元年(988)에 입적하였는데

다비(闍維, 火葬)를 하였을 때 舍利가 뼈 속에 가득차 있었다.
 闍維之日 舍利盈滿骨中³⁹⁾

고 한다.

그는 「觀經疏記」, 「光明玄贊釋」, 「光明句備急抄」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門下에는 뛰어난 제자가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四明 知禮(法智), 慈雲 遵式 등이 유명하며 知禮와 遵式은 스승의 뜻을 이어 天台敎學 重興에 큰 힘이 된 二大弟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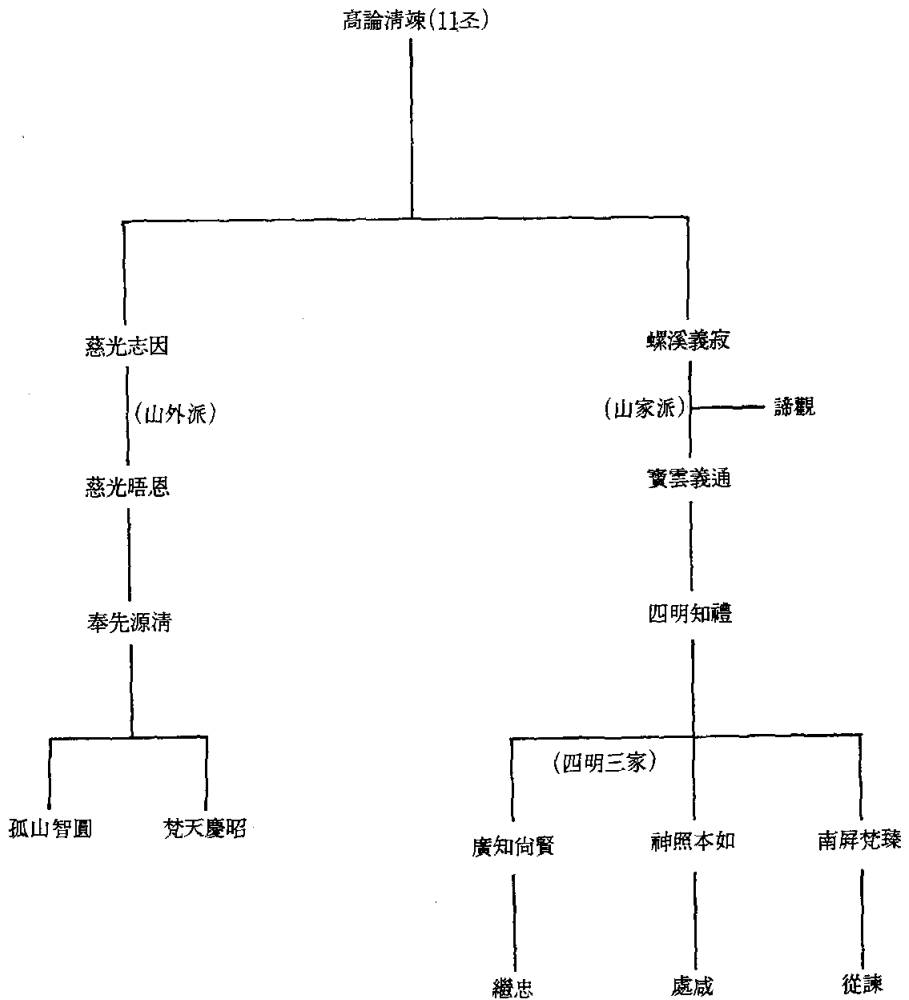
사실 天台大師 이후 天台 一家의 敎學은 天台山이 그 중심이었으나 우리나라 고려 스님인 寶雲尊者 義通에 의해 비로소 天台敎學의 중심이 天台山을 떠난 四明 땅으로 옮겨 지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뿐아니라 우리나라에 天台宗을 열었던 大覺國師 義天

37) 同 49, 191b

38) 同 49, 191c

39) 同 49, 191c

도 실은 寶雲尊者 義通의 法會孫이 되는 從諫法師로부터 天台의 教觀을 받아 왔다. 그리고 從諫은 義通法師의 수제자인 四明知禮法師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四明三家의 한 사람인 南屏 梵臻의 수제자이기도 하다. 결국 義通은 본국 고려로 돌아오지 못하고 中國 땅에서 입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태관계의 저술을 남겼을 뿐아니라 그의 法은 從諫을 통하여 大覺國師에 의해 고려로 들어와 역사적인 天台宗 開立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海東天台의 正脈이 正統法脈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확실한 역사이므로 海東天台의 연원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天台宗 제12祖 螺溪義寂의 뛰어난 제자 중에는 그 법을 이은 高麗國 출신 天台宗 제13祖 寶雲義通 외에도 유명한 고려의 諦觀法師(∼961∼970)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天台四教儀」라는 유명한 天台敎學 서적을 저술함으로써 초기 우리나라 천대교학의 정립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佛祖統紀」⁴⁰⁾에 의하면 諦觀은 高麗 초의 高僧인데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지만 天台典籍을 中國에 가지고 가서 宋 天台宗 부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記述되어 있다.

당시 中國은 唐末에 있었던 5代 10國의 전란으로 군소국가가 꼬리를 물고 난립하였는데 이 때를 5代의 시대라 한다. 이러한 때 불심이 돈독했던 吳越王은 「永嘉集」⁴¹⁾을 읽다가 ‘同除四住’라는 말을 보게 되었는데 그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당대의 고승인 天台德韶國師에게 물었다. 이에 덕소는

이것은 天台敎義에 속하는 말이므로 天台宗의 義寂法師에게 물어 보십시오.⁴²⁾

라고 하였다. 왕은 즉시 天台 제12祖 라계의적을 불러서 그것을 물어보았다. 이에 의적이 말하기를

이는 智者大師의 「法華玄義」에 나오는 圓敎의 修行階位에 관한 구절인데 그 책은 戰亂과 法亂으로 모두 없어졌습니다.

此智者妙玄妙位中文 唐末敎籍流散海外 今不復存⁴³⁾

라고 하면서, 이 기회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典籍들을 가능한 한 구해오도록 종용하였다. 그로부터 吳越忠懿王 錢弘俶은 이웃 海外의 여러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佛敎典籍을 모아 구하여 오게 하였는데, 특히 高麗에는 사신으로 하여금 글(國書)과 함께 50種의 보배로써 전적을 구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에 체관은 光宗의 명에 의해 天台敎籍을 지니고 中國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 역수입해 간 佛敎典籍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는 天台敎學은 물론 佛敎敎學 전체가 다시 흥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체관은 中國에 남아 義寂의 문하에서 10여 년 간 체류하며 불교를 연구하고 강의하던 중 어느날 앓은 채로 입적하였다.

그가 入寂한 후 그의 거처하던 방 상자에서 환하게 빛이 났으므로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天台四教儀」라고 제목한 원고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의 유일한 著書였던 이 四教儀

40) 「佛祖統紀」卷10, 「大正藏」49, 262a.

41) 「大正藏」49, 206b.

42) 「大正藏」49, 206a.

43) 「佛祖統紀」卷10, 「大正藏」49, 206a, b.

는 「諦觀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책은天台敎學을 매우 간결하고도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정리하여 놓은天台敎學의 入門書일 뿐아니라 훌륭한 佛敎概說書이기도 하다. 따라서天台宗 이외의 다른 여러 宗派에서도 널리 배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석서도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佛敎界 必讀의 名著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방대한 「四敎儀」 주석서 중에서도 蒙潤의 「天台四敎儀集註」는 특히 유명한데, 그는 이 책 序文에서 四敎儀를 찬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관의 四敎儀는天台一家의 敎義綱要를 총망라하고 있다.天台敎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보아야 한다.⁴⁴⁾

또 세끼구찌(關口眞大)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四敎儀」를 칭송하는 先學들의 序文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一家의 敎觀을 망라하고 8萬의 法藏을 머금은 것은 오직 이 책 뿐이다. 이 책은 1卷이지만 萬卷에 필적하는 가치가 있다. 아아 위대한 諦觀스님의 저술이여! 가히天台의 如意珠며 학자의 보배로다.⁴⁵⁾

또 圓如가 쓴 序文을 소개하여

天台四敎儀는 敎門의 要道이다. 글의 뜻은 간략하나 佛法을 남김없이 함장하였고 一家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모두 통섭하였다. 入道의 指南이며 敎海의 보배로다.

라 하였다. 先學들이 이같이 극찬하고 있는 것 처럼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는가는 그 註釋書가 73種이나 되고 末疏가 130種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중에서 刊本이나 藏經에 收錄된 주석서만도 50여 부에 이른다. 특히 15세기 이후의 日本 佛敎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日本의 明治時代 이후에도 20인에 가까운 학자들에 의해 註釋類가 간행되었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宋 從義가 쓴 「四敎儀集解」 3卷, 南宋 元粹가 쓴 「四敎儀備釋」 2卷, 元의 蒙潤이 쓴 「四敎儀集註」 3卷이 三大註釋書로 가장 유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諦觀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天台敎觀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있는 저술을 남겼던 것이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제관 이전의 三國時代부터天台敎觀을 배웠거나 그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전래시킨 인물들은 적지 않았다. 또天台의 근본 聖典인 「法華經」 연구에 힘을 쏟았던 인물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天台敎學 그

44) 吉谷覺壽, 「天台四敎儀 集註略解」 p.1.

45) 關口眞大 編, 「昭和校訂天台四敎儀」 附錄 p.1.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깊게 연구하고 저술을 남겼던 인물은 없었다. 海東人으로서의 제관이 맨 처음으로 天台敎學의 研究書인 「天台四敎儀」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는 中國에 가서 천대교관을 연구한 뒤에 귀국하지 못하고 그 곳에서 入寂하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天台四敎儀」를 통하여 그의 天台敎觀은 中國, 韓國, 日本 등지에 널리 퍼져나갔다. 따라서 諱觀은 초기 海東天台의 敎學形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天台法脈과 義天

부처님에게서 發源한 天台의 法脈 및 學脈은 龍殊와 天台大師 지의를 거쳐 天台 제11祖 高論 清棟으로 이어지고 그 法은 다시 山家派인 螺溪 義寂과 山外派인 慈光 志因 계통으로 갈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天台宗을 처음으로 開創했던 大覺國師 義天은 天台宗 제13祖인 高麗國 出身 寶雲 義通의 法曾孫이 되는 從諫法師로부터 天台의 敎觀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從諫은 義通法師의 수제자인 四明 智禮法師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四明三家의 한 사람인 南屏 梵臻의 수제자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天台의 正統法脈을 잇고 있는 大覺國師는 高麗 文宗9年(1055) 문종의 네째 왕자로 태어났다. 姓은 王氏 이름은 후(煦) 字는 義天이며, 大覺國師는 그의 시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총명하고 성인의 길에 뜻이 깊어 주위 사람들의 칭송이 많았다.

의천이 11세 되는 해의 어느 날이었다. 文宗이 여러 형제를 불러 놓고 ‘너희들 중에서 누가 出家하여 福田을 짓겠느냐’고 물었다.⁴⁶⁾ 이 때에 의천은 어린 나이지만 선뜻 일어나 出家를 자원하였다. 文宗은 景德國師를 내전으로 불러서 삭발을 시키고(1065) 景德과 함께 靈通寺에서 수업하게 하였다. 같은 해 10月 佛日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學問에 힘을 기울여 大乘 小乘의 三藏은 물론 유교의 典籍과 歷史書 및 諸子百家의 思想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景德國師가 入寂하자 그의 講義를 대신 맡게 되었는데 훌륭한 강의로 인하여 그의 名聲이 온 나라에 드날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文宗21年(1067)에는 祐世라는 法號와 함께 僧統職을 수여받았다.⁴⁷⁾

그는 求法을 위해 宣宗2年(1085) 宋 나라에 건너갔는데 宗帝는 예의를 갖추어 맞아드려 首都인 變경에 있는 啓聖寺에 머물게 하였다.

그 곳에서 여러 달을 보낸 國師는 杭州 大中祥符寺 淨源法師에게로 갔다. 그 곳에서 華嚴, 楞嚴, 圓覺, 起信 등과 天台敎學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談論하였다. 특히 天台의 正統法脈을 받아들인 慈辨大師 從諫과 靈芝寺 元炤律師와의 교류가 깊어 天台敎學과 戒律과 淨土敎學에 대해 폭넓은 담론을 갖기도 하였다.⁴⁸⁾ 또 天台山에 가서 天台大師의 浮圖

46) 趙明基, 「義天大覺國師와 天台思想」 p.9.

47) 僊鳳寺 大覺國師碑 「朝鮮金石總覽」上卷 p.330.

48) 趙明基, 前掲書, p.13.

를 참배하고 그의 탑 앞에서 發願文을 지어 高麗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天台敎學을 宣揚할 것을 서원하였다.

國師는 中國에 약 14個月 동안 체류하며 名山 古蹟을 역방하고 高僧碩德 50여 명을 심방하여 佛學을 폭 넓게 講論하고 宣宗3年(1086)에 귀국하였는데 올 때에는 佛敎經典과 章疏 3천 여 권을 구해 갖고 돌아왔다.

본국에 돌아 온 뒤 父王 文宗이 12年間に 걸쳐 創建하였던 興王寺에 住持로 있으면서 天台敎學을 조직하는 한편 佛敎書籍의 모집과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 遼, 宋, 日本 등에서 4,000餘卷의 章疏를 收集하고 國內의 古書를 모았다. 그리하여 興王寺에다 敎藏都監을 두어 이들 經書들을 간행하였다. 그 目錄으로서 「新編諸宗敎藏總錄」 3권을 編集하였는데, 「義天目錄」 혹은 「義天錄」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經, 律, 論 三藏의 정본 외에 그 註釋書인 章疏만을 收集하여 目錄을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部門에서는 最初가 된다는데 특색이 있다. 이 「義天錄」의 上卷에는 經의 章疏 561部 2,586卷 中卷에는 律의 章疏 142部 467卷, 下권에는 論의 章疏 307部 1,687卷이 각각 수록되었으니 모두 합쳐서 1,010部 4,740卷이 된다. 興王寺 敎藏都監에서는 이 目錄에 바탕하여 高麗續藏經⁴⁹⁾을 刊行했던 것이다.

國師는 이렇듯 방대한 經論 佛事에 헌신하다 보니 과로에 지쳐 宣宗11年(1094)에 海印寺에 은거하면서 정량하였으나 제15代 肅宗이 王位에 오른뒤 그의 간청에 의해 다시 興王寺로 돌아 왔다. 숙종2年(1097) 2월에 國淸寺가 준공되자 義天은 그해 5월에 初代 住持로 취임하여 天台敎學을 강의하니 모여드는 學者가 무려 1千名을 넘었다 한다. 여기서 비로서 韓國佛敎 역사상 처음으로 天台宗이 한 宗派로서 開立하게 된다.⁵⁰⁾ 즉 自宗에서 僧侶 國家시험의 예비 시험격인 僧選을 시행함으로써 宗의 獨立을 認定하게 되고 아울러서 公認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숙종4年(1099)에는 제1회 天台宗의 승려 시험(僧選)을 행하였고 同王6年(1011) 10月 5日 身病으로 인하여 향년 47세(僧侶生活 36年)를 일기로 入寂하셨다.

國師는 폭넓은 見聞과 해박한 知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著述을 남기고 있다.

- 1) 「新編諸宗敎藏總錄」 3卷
- 2) 「新集圓宗文類」 22卷
- 3) 「釋苑詞林」 250卷
- 4) 「刊定成唯識論單科」 3卷
- 5) 「華嚴經」 180卷

49) a. 「佛敎學大辭典」, 弘法院, p.76.

b. 趙明基, 前揭書, p.19.

50) 「高麗史列傳」卷3, 宗室一 ‘大覺國師煦’에 ‘始創天台宗 置于國淸寺’라고 있음.

6) 「涅槃經」 36卷

7) 「八師經直釋」

이밖에도 10餘部 3,000餘卷의 著述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新編諸宗教藏總錄」 3卷과 「大覺國師文集」 「大覺國師外集」의 落張本과 「圓宗文類」 「釋苑詞林」의 殘篇과 「刊定成唯識論單科」의 序文만이 전해 오고 있다.⁵¹⁾

國師의 思想에 대해서는 그가 단적으로 표현한 著書나 記錄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무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新羅佛敎의 代表라 할 수 있는 元曉聖師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상적 편린을 엿볼 수 있다.

國師는 元曉聖師(617-686)가 入寂한 후 369年 만에 태어났다. 國家는 新羅에서 高麗로 바뀌어 있었으나 佛敎는 護國佛敎 중심의 新羅佛敎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高麗의 佛敎學者는 반드시 新羅時代의 思想을 알아야 했고 그 時代의 代表者였던 元曉와 義湘을 연구하였다. 國師는 특히 元曉의 和諍思想을 信奉하고 그 思想에 바탕하여 佛敎를 改革하고자 하였다. 國師가 元曉聖師를 부처님과 같이 받들고 義湘과 諦觀을 尊崇했던 것은 이들의 圓融理念에 있었던 것으로서 和諍思想을 계승하고 重興함으로써 敎觀을 함께 닦는 天台觀法을 確立하였다.

이 思想은 普照國師 知訥에게 이어져 定慧雙修를 천명하게 하였고 太古 普愚에게는 禪敎 統一門을 설하게 하였으며, 李朝時代에 들어와서는 淸虛禪師 休靜으로 이어져 護國佛敎의 극치를 이루었다.

國師는 우리나라 佛敎의 振興과 發展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外遊求法, 佛敎學의 振興, 佛敎典籍의 정비, 續藏經 刊行, 天台宗 開立 등으로 그의 業績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히, 天台宗의 開立은 敎團의 으로나 國家的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國師는 원래 華嚴宗 系統의 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天台敎學을 열심히 연구하고 마침내 天台宗을 開立하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天台의 會三歸一, 一心三觀의 敎義로서 國家的 기반을 공고히 하고 禪敎의 統合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즉 그의 根本精神은 佛敎의 제사상을 天台의 一佛乘으로 止揚하고 定慧雙修의 方法으로 이를 실천하여 國家에 歸一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곧 新羅의 元曉思想을 復興시켜 당시의 社會와 佛敎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으며 韓國國民의 統一原理를 天台思想에서 발견하고 이에 의해 國利民福과 國家社會의 安寧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 하였던 것이다.

結局 元曉聖師의 統佛敎思想인 和諍思想은 大覺國師 義天에 의해 다시 復興하게 되었

51) a. 白性部 博士 頌壽記念 「佛敎學論文集」, p.898-904.

b. 趙明基, 前揭書, p.29-42.

다. 나아가 國師는 和諍思想을 들어 ‘海東教主 元曉菩薩은 百家의 異諍을 융화시켜 하나로 돌아가게 하였다.’⁵²⁾고 했으며 元曉의 著述과 思想的 업적은 馬鳴이나 龍樹를 능가한다고 평가 하였다.

國師는 실천을 위주로 하는 禪宗이 修行을 하는 것이 正道인데도 가볍게 법을 證得하였다고 만족하는 禪納들을 크게 꾸짖었고, 教宗의 學僧들에 대해서도 마음은 名利를 탐하고 教學은 점점 褻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教와 禪을 겸수하는 것이 佛敎修行의 正路이며 어느 한 쪽이 결여되었을 때는 不安全한 佛敎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國師의 根本的 佛敎觀이요, 思想임과 동시에 高麗 佛敎에 있어서 天台思想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國師는 禪과 教를 天台敎學으로 융화시킴으로써 高麗 佛敎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新羅 말부터 일기 시작한 禪敎의 분쟁을 和合시키려 하였다. 國師는 天台의 觀法에 禪을 接木시켰고, 華嚴一乘과 天台一乘이 理論的이나 宇宙와 人生의 統和의 이념에 있어서 大同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天台에다 華嚴을 포섭하고 그밖의 모든 思想과 學의 체계를 이에 歸一시킴으로써 敎界의 융화와 思想의 統一을 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른 宗派처럼 自宗의 우수성을 내세워 다른 宗을 멸시 하려는 것이 아니고 天台라는 宗마저도 破하여 眞乘이라는 부처님의 眞面目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國師는 天台敎觀을 중시하면서도 佛敎學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俱舍, 唯識起信, 華嚴⁵³⁾ 등을 두루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學問的 편견을 경계하였다. 國師는 佛敎學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統佛敎的 研究方法을 취하여 界限을 널리 涉렵함으로써 독특한 敎觀並修觀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國師의 天台思想은 敎의 傳授도 중요하지만 觀 즉, 실천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敎觀並修思想을 내세우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서술했듯이 大覺國師 義天은 天台의 正脈을 從諫法師로부터 잇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받아들인 天台의 法脈과 思想에 바탕하여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天台宗을 開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天台敎觀에 대해서 직접 著述한 撰述書는 남기고 있지 않더라도 元曉聖師와의 관련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情狀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얼마나 天台法華 思想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禪, 敎의 두 門을 天台思想에 의해 하나로 會通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治國의 理念까지도 天台思想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海東天台의 本格的인 뿌리내리기와 전개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52) 《祭芬皇寺晚聖文》「大覺國師文集」16卷.

53) 趙明基, 前揭書, p.45.

結 語

海東天臺의 源流를 究明함에 있어서는 어느 要素를 重點적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見解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여러 각도에서 照明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지점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大覺國師가 ‘海東天臺의 源流는 元曉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一宗, 一派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元曉의 敎判과 天臺敎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선 三國時代부터 天臺敎觀을 전래시킨 인물들을 記錄하고 있는 傳記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이 받아들인 天臺思想을 밝히고, 傳記의 誤謬여부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大覺國師 義天이 ‘海東天臺의 앞을 元曉가 장식하고 諦觀이 뒤를 드날렸다’는 말씀에 따라 戒觀法師가 天臺敎學을 復興시킨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復興期 海東天臺의 源流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으며, 실제로도 天臺敎觀思想이 海東人의 著述을 통하여 맨 처음 본격적으로 구명되기 시작한 것은 諦觀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는 비록 귀국하지 못하고 中國땅에서 入寂하였지만 그가 天臺 제13祖 高麗출신 寶雲 義通과 거의 同時代 인물였으므로 그의 天臺敎觀은 義通의 法曾孫인 從諫法師를 거쳐 大覺國師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海東天臺의 源流는 멀리는 三國時代부터 發源하고 있지만 그 法脈이나 敎觀을 두루 갖추어 시작된 것은 大覺國師가 從諫의 法을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